



수출신용기관

◆ 미수은, 2004년 경쟁력 보고서 발표

미수은은 최근 미수은의 중장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G-7국가의 다른 주요 ECA와 비교한 경쟁력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매년 설문조사, 수출신용 이용 기업 및 수출신용 참여 금융기관과의 토의, OECD 자료, G-7국가 ECA와 일부 OECD 비회원국 ECA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중국, 브라질, 인도와 같은 신흥개도국¹⁾의 ECA를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수출신용 공여에 있어 미수은의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는 신흥개도국 ECA의 전략과 금융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4년 경쟁력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년 주요 ECA 동향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세계시장에서의 자본재 및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G-7국가 ECA의 중·장기 여신도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G-7국 ECA의 총여신비중도 증가하였다. 둘째, 이러한 수

출신용 업무의 확대는 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인프라 재건 및 구축에 힘쓰는 신흥개도국시장에서 자본재 수요가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이의 상당부분은 수출확대로 연결되었다. 셋째, 이들 신흥개도국시장은 과거 ECA 수출신용의 주요 수요자였으나, 이들 국가의 상당수는 이제는 공적 수출신용의 중요한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다. 넷째, WTO체제의 확립과 상업금융의 발달로 새로운 수출금융 공급원이 등장하면서 수출신용 시장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7국 ECA 및 다른 ECA 들도 새로운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2004년은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신용 수요도 증가하였고 수출신용 환경과 ECA 업무여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주요 항목별 평가내용

(1) 핵심 영업정책 및 제도의 경쟁력

전반적으로 미수은의 핵심업무 지원조건은 다른 G-7국 ECA들과 비교하여 매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수은의 100% 보증프로그램은 다른 어느 ECA보

1)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동유럽 및 CIS국가를 포함.

〈표 1〉

G-7 신규 중·장기 공적수출신용 공여규모

단위: 10억 달러

G-7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캐나다	3.7	4.7	11.1	10.1	9.5	10.0
프랑스	5.5	4.5	6.1	5.3	5.1	5.4
독일	6.7	10.3	5.7	5.9	5.7	9.6
이태리	1.6	3.3	1.9	1.8	3.6	5.4
일본	8.1	10.8	9.2	5.7	11.5	10.8
영국	5.2	5.8	3.1	4.7	3.7	3.0
미국	9.4	9.6	6.8	7.7	8.6	8.5
합계	40.1	49.1	43.9	41.2	47.7	52.7
미국비중	23.4%	19.6%	15.1%	18.7%	18.0%	16.1%

자료: 1999-2003년간은 OECD Statistics on Export Credit Activity.
2004년은 추정치.

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수은은 위험인수에 있어 국별 한도 등의 제약이 가장 적고, 대외위험수수료는 다른 ECA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수출업체들도 신흥개도국 시장의 중·장기 신용위험 인수에서 미수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쟁국 ECA의 적극적인 위험인수로 미수은의 경쟁력 우위 격차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수출신용 프로그램의 경쟁력

미수은의 프로젝트파이낸스 프로그램은 여전히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협조융자(co-financing)프로그램은 유럽의 경쟁기관에 비하여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지비용 지원프로그램과 상업용 항공기 지원프로그램은 다른 ECA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경제철학과 경쟁력

OECD수출신용협약이 수출신용 부문에 있어서의 정부개입의 시장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여전히 공적 지원이 불공정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선 언타이드 원조와 마켓윈도우²⁾가 해당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쟁국들은 이를 불공정 경쟁에 교묘히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경제의 왜곡은 미국의 수출신용 철학과 위배된다. 언타이드 원조의 제한에 관한 논의는 2004년 후반 OECD 내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마켓윈도우에 대한 논의는 EU의 결정에 따른 독일 금융 부문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6년 말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2) 마켓윈도우란 일정 수준 정부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도 시장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공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금융제도임. 현행 OECD수출신용협약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불공정 금융지원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4) 공공정책 수행

미수은은 일정규모의 금융지원에 있어 환 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수출금액에서 외국산 기자재 비율이 15%이상 되는 경우는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수출품 운송 시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이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ECA들도 통상 외국산 기자재 비율 제한 규정이 있으나, 미국보다는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기업 보호라는 공공정책 수행에 따른 제약은 미수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평가

2004년 미수은에 대한 종합평가는 A+에서 F까지의 등급 중 A등급으로, 대체로 다른 G-7국 ECA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미수은의 지원조건은 다른 ECA 평균 지원조건과 비슷하며,

따라서 미 수출기업은 적어도 수출신용 면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

과거 미수은은 핵심영업부문 및 주요 금융프로그램의 부보범위, 이자율, 각종 수수료 등에 있어 매우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고, 공공정책 수행에 따른 제약으로 약간의 경쟁력 손실이 있었다. 그러나 2004년 다른 ECA와 비교하여 보면, 미수은의 경쟁력 순위 격차는 경쟁기관들의 적극적인 추격으로 인하여 매우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7국 ECA들은 고객층과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ECA의 목적이나 역할에 대하여 미국과는 다른 견해를 갖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미수은도 이러한 경쟁국 ECA의 정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의 새로운 ECA의 등장은 더욱 경쟁적인 수출신용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

<표 2> 미수은의 경쟁력 종합평가 점수

평가 부문	점 수
핵심영업정책 및 제도	A
1. 인수정책 및 위험인수의 적극성	A
2. 금리	A
3. 대외위험수수료	A+
주요 지원프로그램	A
1. 대형항공기	A
2. 프로젝트파이낸스	A+
3. 협조융자	B
4. 외화표시보증	A
총 합 평 점	A

【안 응 호】